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 번역 특징에 대한 고찰

이달*

1. 들어가는 말

『성경전서』(1911년)¹⁾는 최초의 신소설인 이인직의 『혈의 누』(1906년)와 동시대에 출판되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이 시기는 시대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새로운 것을 모색하던 때였다. 이 당시 조선은 일제의 합병을 맞아 혼란을 겪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웠다. 당시의 지식인들과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조용하게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성경전서』(1911년)의 출현이었다. 사람들은 양반을 중시하는 유교 사회의 봉건적 경직성에 식상해 하던 차였다. 일제의 압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민족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평등과 자유를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에 희망을 걸기 시작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그 사상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²⁾

* 한남대학교 교수, 신약학

1) 1911년에 출간된 『성경전서』 서지 사항은 민영진의 『국역 성서연구』(서울: 성광문화사, 1984), 156-161과 “창세기(1906/1911)-서지 사항, 편집 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1 (2010), 5-7을 참고하라.

이러한 때에 개신교가 전래된 지 4반세기만에 우리말로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 나왔다는 것은 선교사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이 글은 『성경전서』(1911년) 중에서 요한계시록³⁾의 번역에 관련된 특징들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번역과 관련된 더 진전된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할 때 다음 몇 가지 가정이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100년 전의 『성경전서』(1911년)와 오늘날의 표기상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성경전서』(1911년)에서 사용된 단어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셋째로, 『성경전서』(1911년)에 나타난 잘못된 번역을 찾아보려고 한다.

약 100년 전에 출판된 『성경전서』(1911년)를 현대인들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표기 방법이 현대어와 다르기 때문이다. 100년 동안 한글은 표기 방식이나 문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그것은 보통의 현대인들이 『성경전서』(1911년)를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데서 금방 알 수 있다. 이 글은 약 100년 전의 표기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읽게 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관찰하고 조사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전의 표기만 오늘날의 표기로 바꾼다면 『성경전서』(1911년)를 읽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미의 변천을 가져온 단어를 사용하거나 오늘날 더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표

-
- 2) 개신교가 들어온 지 25년 만에 20만 명으로 교세가 신장된 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으로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부흥 운동의 결과는 한국 교회의 성장에 모판이 되었다. 박용규, 『평양대부흥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643.
- 3)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은 그 제목을 “묵시”로, 부제로 “신학스 요한이 받은 거시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묵시”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의 불확실한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소망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자를 “신학스”로 호칭하고 있는데, 이는 “묵시”가 저자가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성을 갖춘 학자가 기록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기를 바꾼다고 해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표기나 단어 의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번역에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성경전서』(1911년)를 읽고 이해하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번역은 단순히 표기나 단어 문제가 아니라 부분이나 전체 문장의 의미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 번역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2. 표기 문제

표기법은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적인 약속이다. 또한 표기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보이기 마련이다. 때로는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때로는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기 방식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너무 빨리 일어나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된다. 표기 방식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이나 학문적인 토론의 결과나, 언어 대중이 선호하는 방향에 의해서 발생한다. 또한 의미를 더 잘 드러낼 수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거나, 의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읽기와 쓰기에 편리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 『성경전서』(1911년)에 사용된 표기법과 오늘날의 표기법을 비교해 보면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절을 달리 하여 연철·분철의 문제, 음소 표기, 음운 현상의 표기, 문법 형태의 표기 양상 등을 다루도록 하겠다.

2.1. 연철·분철 양상

훈민정음 창제(1443년) 때는 받침을 조사나 어미에 내려쓰는 연철

표기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16세기부터 조금씩 무너져 점차 명사와 조사, 용언과 어미를 분리하는 분철 표기의 방식으로 변화되어 갔다.⁴⁾ 한글은 표음 문자이지만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문자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한 기호로 필요하긴 하지만, 독서에 능률적이라면 형태소를 고정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글 표기에서 소리를 중시하는 음소적 표기법이 뜻을 중시하는 형태적 표기법과 병행하게 된 이유이다. 『성경전서』(1911년)가 발간된 개화기는 연철 표기에서 현대 국어의 분철 표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현대 국어와는 달리 연철 표기도 많이 확인된다.

(1) “씨셔”(1:5), “드르니”(1:10), “도리켜”(1:12), “드를지어다”(2:7), “노하”(2:14), “만토다”(2:19), “더브러”(2:22), “엇더케”(3:3), “그러치”(3:9), “베프렛는디”(4:2), “마즌차의”(7:4), “만히”(8:3), “부르지질”(12:2), “나흐매”(12:5), “도라가셔”(12:17), “버셔난자들이”(15:2), “죯차-죯아”(16:17), “가친”(18:2), “그러케”(18:17), “안터라”(21:1), “무어시던지”(21:27).⁵⁾

2.2. 음소 표기

2.2.1. 자음 표기

『성경전서』(1911년)에서 받침으로 사용된 자음의 표기를 살펴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쓸 수

4) 중세 국어의 연철과 분철 현상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익섭, 『국어학 개설』(서울: 학연사, 2000), 242-244를 참고하라.

5) 이에 비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발견할 수 있다. 예, “두루막이를”(6:11), “일우리니”(10:7), “집힘이-지팡이”(11:1), “꿈인-꾸민”(15:6), “녁이 고-여기고”(17:6), “임의-이미”(17:10).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8개의 자음만을 받침으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15세기에는 받침의 표기에서 엄격하게 구별되던 ‘ㅅ’과 ‘ㄷ’이 16세기 후반부터 상당히 심한 표기의 혼란을 겪는다. 그러다 18세기부터는 ‘ㄷ’은 없어지고 ‘ㅅ’만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ㄱ, ㄴ, ㄷ, ㅁ, ㅂ, ㅅ, ㅇ’ 등 7개의 받침만 사용되었다. 『성경전서』(1911년)에서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받침 ‘ㄷ, ㅌ, ㅈ, ㅊ, ㅎ’ 대신에 ‘ㅅ’을 사용했다.

(1) ‘ㄷ’ 받침: “밋음”(2:19), “궂게”(2:25), “밧은”(2:27), “뫋논”(7:2), “쫏으라”(16:1).

‘ㅌ’ 받침: “붓잡아”(7:1), “붓논”(8:8), “궂고”(13:2), “붓치니”(20:8), 참고, “궂치”(6:12).

‘ㅈ’ 받침: “밤낫”(7:15), “밧지”(9:4), “밧치디”(22:2).

‘ㅊ’ 받침: “밧”(5:6), “내어쫏기니”(12:9), 비교: “낫출”(12:14), “멧치던지”(13:15).

‘ㅎ’ 받침: “쫏코”(21:18).

이러한 표기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엇’의 표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죽엇다가”(2:8), “당ㅎ엇느니라”(2:13), “담앗스니”(5:9).

된소리 표기에 된시옷(ㅅ계 합용병서)이 사용되었다.⁶⁾

6) 된소리의 표기는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이 있었다. 1909년 국문 연구소에서 제정한 “국문연구의정안”에서는 된소리 표기에서 “ㅅ, ㅆ, ㅈ, ㅊ”을 버리고 “ㄱ, ㄷ, ㅁ, ㅂ, ㅅ, ㅇ”을 쓰도록 하여 오랜 전통을 깨는 결정을 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방의 국권 피탈로 사장되고 말았다. 그 후 1912년에 나온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는 된소리 표기를 “ㅅ, ㅆ, ㅈ, ㅊ”로 결정하여 19세기 말까지 사용되었던 예전 전통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1930년의 “언문철자법”과 1933년의 “한

(3) “불꽃 ㄹ고”(2:18).

그러나 된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경우, 쌍자음 중 하나가 모음과 결합하여 표기되기도 하였다.⁷⁾

(4) “석긴-쉬인”(8:6), “삭기-새끼”(13:11), “씩긋흔-깨끗한”(19:14).

거센 소리의 표기에서는 이른바 재음소화된 표기 즉 ‘ㄱ’은 ‘ㄱㅎ’으로 ‘ㅌ’은 ‘ㅌㅎ’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발견된다.⁸⁾ 모음간의 격음화는 19세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⁹⁾

(5) ㄱ. “ㅌ+ㅎ”=ㅌ의 경우. 예, “ㄹ흔이가”(1:13), “것혜”(5:11).

ㄴ. “ㄱ+ㅎ”=ㄱ의 경우. 예, “직희(지키)는자가”(2:14), “식히 실”(11:18).

글맞춤법통일안에서 주시경의 주장대로 15세기 표기법인 “ㄱ, ㄲ, ㅅ, ㅆ, ㅈ”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익섭, 『국어학 개설』, 247-251을 참고하라. 위의 설명을 통해 살펴본다면, 『성경전서』(1911년)의 된소리 표기는 아직 18-19세기에 일반화되었던 “ㅌ, ㄲ, ㅅ, ㅆ, ㅈ”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세기 말에 나온 천주교계 성서는 각자병서(ㄱ, ㄲ, ㅅ, ㅆ, ㅈ)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표기상의 혼란을 보여주는 예임과 동시에 교단에 따른 번역 방침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달라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길남, “초기 국역 성서의 표기에 관하여,”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243 참조.

7) 현대어에서 쌍자음으로 표기된 단어이지만, 『성경전서』(1911년)에서는 복자음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 예, “안뵈그로-안뵈오로”(5:1), “깃버혀야기빠하여”(11:10), “앗기지아니헛엇도다-아끼지”(12:11), “맛당히-마땅히”(13:10), “뵈게서-뵈에서”(14:20), “붓그러움-부끄러움”(16:15), “엇지-어찌”(16:18).

8) ‘ㅎ’이 첨가될 때 격음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 “만흔”(1:15)“만토다”(2:19), “을흔손에”(1:16), “압하서”(12:2). 또한 발음을 따라 “ㅎ”을 넣은 경우도 있다. 예, “일흠”(2:3), “싸호리라”(2:16), “따(?)흠”(10:2), “문혀지며”(11:13), “으희를”(12:2), “빅홀자가”(14:3), “모화/모호니”(16:14,16), “고흔”(18:13), “눅코-노핫스니”(20:12). 이와 같은 예들은 격음화 현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9) 정길남, “초기 국역 성서의 표기에 관하여,” 260.

ㄷ. “ㅂ + ㅎ”=ㅃ의 경우. 예, “압혜”(1:4; 2:14), “갑하주리라”(2:23), “깁흔”(2:24), “덥흐리니”(7:15), “십흐나”(9:6).

2.2.2. 모음 표기

『성경전서』(1911년)에서는 아래아(‘ㆍ’) 표기가 확인된다.¹⁰⁾ 개화기 국어의 모음 체계에서 아래아는 이미 사라졌지만 표기상으로는 여전히 남아 사용되었던 것이다.

(1) “하느님이”(1:1), “스쟈로”(1:1).

현대 국어에는 단모음으로 표기되는 단어가 복모음으로 표기된 예도 확인된다. 이들은 주로 ‘ㅅ, ㅈ, ㅊ’ 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 “넙느쟈와”(1:3), “세세에”(1:6), “나죤이니”(1:17), “실삼은”(2:9), “우샹의 제물을”(2:14), “쥬석과”(2:18), “선지쟈라”(2:20).

현대 국어에서는 음성 모음으로 표기되는 단어의 모음이 양성 모음으로 표기된 단어들도 발견할 수 있다.

(3) “하여곰”(7:1), “얼골”(7:11), “뜨(?)거운”(7:16), “일흠은”(8:11), “빗침이”(8:12), “불 기동”(10:1), “몬져”(13:12), “티오니”(16:8), “붓그

10) 아래아는 1912년에 제정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되었고, 1933년에 제정된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재차 확인된 바 있다. 『성경전서』(1911년)가 한글을 표기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었음을 감안하면, 『성경전서』(1911년)가 발행될 당시에 아래아를 아직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성경 번역에서 끈질기게 아래아가 사용되고 있는 점에 관해서는 정길남, “초기 국역 성서의 모음 현상에 관한 고찰”, (서울: 기독교문사, 1987), 152를 참조하라.

러움을”(16:15).

2.3. 음운 현상 표기

2.3.1. 두음 법칙

『성경전서』(1911년)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어두에 ‘ㄴ’이나 ‘ㄹ’이 사용된 단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 두음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음 법칙은 현대 국어에서 외국어를 제외하고는 일반화된 표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이 『성경전서』(1911년)를 읽는 데 불편할 수 있다.

(1) 두음 ㄴ의 예, “넉논자”(1:3), “닐곱”(1:4), “넉군”(1:5), “니르기를”(1:6), “넉고”(1:13), “너인”(2:20), “닐깨(?)여”(3:2), “니마에”(7:3), “니르켜”(11:7), “니러서니”(11:11), “넛적에도”(11:17), “넉여”(13:3), “넉은”(14:4), “니르럿스니”(14:7), “넉황으로”(18:7), “넉사귀”(22:2).¹¹⁾

(2) 두음 ㄹ의 예, “라발”(1:10), “리훈”(1:16), “림ㅎ야”(2:5), “락원”(2:7), “런단훈”(3:18), “록보석”(4:3), “뢰성이”(4:5), “류리 바다”(4:6), “령물”(4:6), “령흔들이”(6:9), “류황이”(9:17), “레물을”(11:10), “룽이”(12:3), “록명훈바”(13:8), “룩빅 룩십 룩”(13:18), “리수로”(14:20), “룩옥”(21:20).

2.3.2. 구개음화

『성경전서』(1911년)에서는 구개음화와 관련된 여러 현상을 찾아볼

11) “힘닐어”(12:11)와 같이 복합어 안에서 표기되고 있는 경우, 두음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두음 법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 있다. 우선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국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개음화는 근대에 ‘ㄷ’이 모음 ‘이’나 ‘이’로 시작되는 이중 모음 앞에서 ‘ㅈ’으로 바뀐 ‘ㄷ’ 구개음화이다[디> 짚, 더> 저, 디니> 지니, 구디> 구지(굳이)·바티> 바치(밭이), 무티다> 무치다(물히다)].

그런데 『성경전서』(1911년)에서는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단어가 많이 발견된다. 이것은 평안 방언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¹²⁾ 왜냐하면 평안 방언에서는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안 방언에서는 ‘둥디 않다(종지 않다), 테젓(저젓), 구디(굳이), 무티다(물히다)·툰디(天地)’와 같이 발음한다. 요한계시록 번역에서는 아래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1) “더를”(1:7), “더가”(1:17), “형데요”(1:9), “털장을”(2:27), “턴스가”(5:2), “대답을”(5:8), “디방과”(5:9), “더희로”(5:10), “디딘이”(6:12), “시테가”(11:8), “잇슬진더”(12:12), “디면에”(20:9), “덩녕”(22:6).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기원적으로 ‘디’가 아닌 ‘디’의 경우 구개음화가 일어난 후대에 ‘디’로 바뀌어 구개음화를 피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잔디>잔디, 어디>어디, 디디다>디디다, 견디다>견디다, 틔글>티 끌, 느티나무>느티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구개음화가 일어난 시기에 ‘디’아 아닌 ‘디’로 표기했던 단어들의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후대에 ‘디>디’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구개음화를 피할 수 있었다.

(2) “두아되라”(1:11), “라오되게아”(1:11), “안되바”(2:13).

12) 초기 성경 번역에 참여한 한국인 조사들이 평안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태영, “초기 번역성경 연구 II,”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271-272.

『성경전서』(1911년)에서는 ‘ㄱ’ 구개음화와 관련된 현상도 지적할 수 있다. 전라·경상·함경 방언에서는 단어 첫머리에서 ‘ㄱ’도 ‘ㅈ’으로 구개음화되었다(‘ㄱ’ 구개음화: 길>질, 기름>지름, 길다>질다, 끼다>찌다). ‘ㄱ’ 구개음화도 ‘ㄷ’ 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ㄱ>기, 기운>기운’ 등과 같이 기원적으로 ‘ㄱ’였던 단어들은 구개음화를 겪지 않고 후대에 ‘기’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도 확인된다.

(3) “이기는”(3:21), “기도와”(8:3), “흠뻑”(8:4), “연기가”(9:2), “공기가”(9:2).

전라·경상·함경 방언에서는 ‘힘>심, 형>성’ 등과 같이 단어 첫머리의 ‘ㅎ’도 ‘ㅅ’으로 구개음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성경전서』(1911년)에서는 이러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4) “헬수가”(7:9)-셀 수가.

그러나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 번역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참고로, 현대 국어의 표기법에서는 명사와 조사의 연결이나 어간과 접미사의 연결에서 ‘ㄷ’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형태대로 적고 있다[발이(바치),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달히다(다치다)].

(5) “궂치”(6:12), “부르지질”(12:2), “멧치던지”(13:15), “빛치”(21:11).

2.3.3. 모음조화

모음조화가 자주 등장한다. 현대 국어에 비한다면, 당시에 모음조화를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 같다. 이는 전반적으로 양성 모음을 선호하는 경향과 합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1) “아버지”(1:6), “위호야”(1:10), “당호야”(1:10), “긱호야”(1:10), “알아보랴고호야”(1:12), “올모틀”(2:14), “싸호리라”(2:16), “감초앗던”(2:17), “아모나”(3:11), “모통이에”(7:1), “괴로옴”(9:5), “개고리”(16:13), “아조”(17:16), “살오리라”(17:16), “스뭇챗스며”(18:5), “호로”(18:8), “밀 가로와”(18:13), “두루니”(20:9), “긱촌”(21:2), “도모지”(21:25), “갓가오니라”(22:10), “더러온/의로온”(22:11).

2.3.4. ‘ㄹㄴ’의 표기

현대 국어에서는 ‘ㄹㄹ’로 표기하는 모음 사이에서 [ll]을 17세기에서 18세기에는 ‘ㄹㄴ’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성경전서』(1911년)에서도 확인된다. ‘ㄹ’이 받침과 초성으로 연결될 때, 뒤에 오는 ‘ㄹ’을 ‘ㄴ’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자음의 충돌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1) “돌녀”(1:6), “진실노”(1:7), “과실노”(2:7), “끄(?)을니는”(1:13), “니골나”(2:6), “두려워말나”(2:10), “예루살넴”(3:12), “발낙”(2:14), “발나”(3:18), “열닌”(4:1), “올나”(4:1), “늘나가는”(4:7; 8:13), “불녀”(5:2), “사름들노”(6:4), “흔들녀”(6:13), “말니는”(6:14), “납달니”(7:6), “스블논”(7:7:8), “돌녀”(7:11), “알니이다”(7:14), “헬나”(9:11), “달나흔즉”(10:9), “말노”(11:8), “발노”(11:11), “하늘노브터”(11:12), “돌니더라”(11:13), “별노”(12:1), “칼노”(13:10), “믄들나”(13:14), “무리들

노”(13:16), “술노”(14:8), “물낫도다”(14:15), “흠뻑으로”(16:6), “갈내/갈나지고”(16:19), “떨니”(18:10), “떨녀”(19:21).

2.4. 문법 형태소의 표기

2.4.1. 조사

『성경전서』(1911년)에서는 조사의 사용에서 현대어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발견된다. 조사의 사용이 일관성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와 같은 용법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주격 조사 ‘이’의 분포가 현대 국어와 다른 쓰임을 보인다.

(1) “흐나이”(5:5; 6:1; 7:13; 13:3; 15:7; 17:1; 21:9), “나라이”(11:15; 15:4; 16:10; 18:3), 비교: “턴스가”(5:2).

선택이나 열거를 나타내는 ‘나’나 여격 조사의 경우에도 중세 어형의 흔적이 발견된다.

(2) “바다이나”(7:3), 비교: “나무니”(7:3).

(3) “그의게”(1:1), “너희게”(1:5), “종의게”(1:1).

2.4.2. 사이시옷

『성경전서』(1911년)는 사이시옷의 용법이 현대 표기법과 달랐다. 현대어에서는 사이시옷이 사용되고 있는데 비해, 당시 번역에서는 사이시옷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로는

“초딧”(1:12), “훼불”(8:10)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이시옷이 추가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이는 사이시옷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장춧”(1:4; 1:8), “뫓칠 쎬에”(11:7), “긋치 매”(14:13), “스뫓춧스며”(18:5), “뫓치”(21:2)의 경우와 같은 것들인데, 이는 ‘ㅈ’ 앞에서(“장춧”의 경우는 예외) 발음을 강화시키려는 현상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언급한 표기의 특징과 함께 『성경전서』(1911년)를 읽을 때 현대인이 고려해야 것은 오탈자도 많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1) ① “안뫓”(5:14): “아뫓”의 잘못된 표기.

② “털노”(9:9): “털노”의 잘못. 바로 앞에 “녀인의 머리 털 긋고”와 혼동한 듯. 참고, “털장”(2:27; 19:15).

③ “헤여보리”(13:18)과 “헬 수가”(7:9) 중 하나는 틀린 표기로 보아야 한다.

④ “만즌”(17:9)은 “안즌”의 잘못된 표기.

3. 어휘 사용 문제

『성경전서』(1911년)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현대 국어와 차이를 보인다. 형태는 같으나 현대 국어와 의미가 다른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1) ① “영”의 뜻으로 “신”(1:4)이나 “신령”(16:14)이나 “령혼”(22:6)을 사용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성령”의 뜻으로 “성신”(1:10)을 사용하고 있다.¹³⁾

13) 이러한 변화는 『성경전서』(1911년)을 번역할 때는 “Holy Ghost”로 번역한 *Revised Vers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81-1885)을 참고하였고, 『개역』

- ② ‘적은’의 뜻으로 “여간흔”(3:8)을 사용하고 있다.
- ③ ‘말씀’의 뜻으로 “도”(3:10)를 사용하고 있다.¹⁴⁾

이외에도 현대 국어와 표기가 달라 일반인이 낯설게 생각할 만한 단어들은 다음의 예들이 있다.

(2) “짜에”(1:7), “버려-벌려”(12:16; 13:6), “더러이지-더럽히지”(14:4), “말 구레-말 굴레”(14:20), “안찰햐-없어”(1:17), “둔니시는 이가-다니시는 이가”(2:1), “닐씩어-깨어”(3:2), “간난흔-가난한”(3:17), “쌔아셔-빼앗아셔”(6:4), “죠희-종이”(6:14), “바회-바위”(6:15), “임의-이미”(6:17), “화합햐-합하여”(8:3), “무더항-무저갱”(9:1), “꺄꺄쳐-가리켜”(10:6), “삭기-새끼”(13:11), “햐-인하여”(14:8; 16:11,21; 18:3),¹⁵⁾ “샤귀-더러운 영”(16:13), “웨-왜”(17:7), “일심을 먹고-한 뜻으로”(17:13,17), “쥬의를-마음을”(17:17), “웃 가음-웃감”(18:12), “안히”(21:9).

4. 번역 문제

을 번역할 때는 “Holy Spirit”으로 번역한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York: Thomas Nelson & Sons, 1901)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무용, “『성경전서』와 『성경개역』의 한국어 문장 비교-요한복음 1장-10장의 어순을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33 (2009), 163 참고.

- 14) 최근에 표명된 “도”가 더 탁월한 선택이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곳에서는 현대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 본 것이다. 나채운, 『기독교 용어 바로잡기』 (서울: 대동출판사, 2009), 49-54 참조.
- 15) “햐”의 경우에는 “~로햐”의 형태로 한 단어 안에서 줄임말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비해 “인햐”는 “을/를”로 끝나는 독립적인 단어 뒤에서 사용된다. 독립적인 단어 뒤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인 “인햐”(15:8)가 온전한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4.1. 번역문적 성격

『성경전서』(1911년)은 기본적으로 번역문이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들어간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확인된다.

(1) ① “발서”(5:5): 원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첨가하였다.

② “대개”(12:10; 14:7; 17:17; 19:10): 원문에서 무엇을 번역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영어의 수동태 문장을 한국어 피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용언의 여간에 ‘이, 히, 리, 기’를 첨가하여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독립된 단어(넙다, 맞다, 엇다)를 첨가하여 표현하려고 한 경우를 볼 수 있다.

(2) ① “넙다”: “감동함을 넙어”(1:10; 17:3; 21:10), “시험을 넙어”(2:10), “보냄을 넙은자라”(5:6), “틈을 넙은지라”(16:9), “부르심을 넙고”(17:14), “던짐을 넙으니”(20:14).

② “맞다”: “죽임을 맞은”(6:9), “침을 맞아”(8:12), “목 버힘을 맞은 자의”(20:4), “괴로움을 맞으리라”(20:10).

③ “엇다”: “싸심을 엇고”(17:14).

4.2. 어색한 번역문과 오역문

『성경전서』(1911년)에서는 어색한 문장이나 원문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오역된 문장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어색한 문장과 오역으로 나누어 그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2.1. 어색한 번역문

『성경전서』(1911년)의 어색한 번역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술어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 “이기고 쏘 이기리라”(6:2)로 끝맺은 것은 첫째 환상을 본 자의 보도문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 개역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와 같이 보도문이 되어야 한다.¹⁶⁾

(2) 앞뒤 의미 연결이 안 되는 경우: “구원하심이여 보좌에 안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로다”(7:10)은 『개역』처럼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정도로 번역했어야 한다. 헬라어 원문은 “Η σωτηρία τῷ θεῷ ἡμῶν τῷ καθημένῳ ἐπὶ τῷ θρόνῳ καὶ τῷ ἀρνίῳ)”인데, 이 문장에는 “ἔστιν”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술어부에 있는 “τῷ θεῷ”와 “τῷ ἀρνίῳ”는 여격으로서 주어인 “σωτηρία”와 같은 주격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동일시할 수 없다. 『구역』처럼 번역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다.

(3) 시제가 잘못된 경우: “예비하다”(8:6)라는 동사 원형은 과거 시제로 바뀌어야 한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ἡτοίμασαι”(단순 과거 능동태 동사 3인칭 복수형)이다. 이를 동사 원형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다. 앞뒤 문맥에 번역된 동사형을 보면 “예비하더라”로 번역했어야 한다.

(4) 사동사가 잘못 사용된 경우: “누구든지 해하려 하는 자는 이와 같이 죽여야 하리라”(11:5)는 의미적으로 볼 때 사동사가 아니라 자동사

16) 김창락은 게일이 이러한 불완전한 문장을 사용한 오류의 진원지라고 주장한다. 김창락, “『성경전서』의 번역 검토-『마태복음서』 번역의 장점과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4:1 (2010), 41-48 참조.

로 써서 “죽어야”로 바뀌어야 한다. 헬라어 본문은 “καὶ εἴ τις θελήσῃ αὐτοὺς ἀδικῆσαι, οὕτως δεῖ αὐτὸν ἀποκταῖθῆναι.”인데, 여기에 사용된 “ἀποκταῖθῆναι”라는 단어는 단순 과거 수동태 부정사 형태다. 여기에서 처럼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어 번역할 경우, 도저히 사동사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아마도 “αὐτὸν”의 대격을 목적어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αὐτὸν”은 부정사의 주어로 기능할 뿐 목적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5) 복수형이 사용된 경우: “매미들을 못하게 하니”(13:17)에서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헬라어 원문은 “καὶ ἵνα μὴ τις δύνηται ἀγοράσαι ἢ πωλῆσαι εἰ μὴ ὁ ἔχων τὸ χάραγμα τὸ ὄνομα τοῦ θηρίου ἢ τὸν ἀριθμὸν τοῦ ὀνόματος αὐτοῦ.”로 되어 있어서, 매매를 하는 자는 단수로, 매매하는 행위는 부정사 “ἀγοράσαι ἢ πωλῆσαι”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한글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매미들”로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다.

(6) 불필요한 단어가 들어간 경우: “하늘에 잇서”(15:5)에서 “잇서”는 부자연스러운 번역이다. 헬라어 원문은 “καὶ ἠνοίγη ὁ ναὸς τῆς σκηνῆς τοῦ μαρτυρίου ἐν τῷ οὐρανῷ”이다. 처격을 번역할 때 『개역/개역개정』처럼 “하늘에”로 하거나, 『공동』이나 『새번역』처럼 “하늘에 있는”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처럼 “에 잇서”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7)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된 경우: “박지로 햅야”(16:21)는 한글로 표기했을 경우 그 의미를 알기 어렵다. 『성경전서』(1911년)는 한글로 번역되긴 했지만 한국인 조사들이 한문 성경을 참고로 하여 번역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한자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국한문 성

경이 아닌 한글로만 번역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박재(雹災)는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처럼 “우박의 재앙”으로 풀어써야 이해할 수 있다.

(8)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10:6)에서 “물건”은 무생물을 연상시키므로 다른 단어로 바꾸어야 한다. 『공동』이나 『새번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것들”로 번역하고 있다. “것들”은 생물과 무생물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역』이나 『개역개정』이 “물건”을 고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9) “보이느니라”(13:10)와 “보이니”(14:12)는 “있느니라, 있으니”로 번역해야 맞는다. 헬라어 원문은 “Ὡδὲ ἐστὶν ἡ ὑπομονὴ καὶ ἡ πίστις τῶν ἀγίων.”이다. “Ὡδὲ ἐστὶν”은 이유를 설명하는 구문이다. “보인다”는 동사는 적절하지 않으며, 당연히 “있다” 동사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그 후의 모든 번역에서 『성경전서』(1911년)의 부적절한 번역을 수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10) “이 여러 죄악 차지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일흠을”(16:9)에서 “차지할”은 하나님께서 부정적 의미를 가진 “재앙”을 적극적으로 품고 있다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 단어의 선택은 문맥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단어를 생략하고 “이 여러 재앙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으로 하는 것이 낫다. 헬라어 원문은 “καὶ ἐβλασφήμησαν τὸ ὄνομα τοῦ θεοῦ τοῦ ἔχοντος τὴν ἐξουσίαν ἐπὶ τὰς πληγὰς ταῦτα καὶ οὐ μετενόησαν δοῦναι αὐτῷ δόξαν.”이다. 여기에서 “τοῦ ἔχοντος”의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번역에서는 “행하는”이나 “지배하는”을 취하고 있다. 이것들은 재앙을 객관적 대상으로 삼거나 적어도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서 적합한 단어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11) “싸에 잇서 옴으로”(16:18)는 어색하여 “땅에 산 이후로”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헬라어 원문은 “ἵος οὐκ ἐγένετο ἄφ’ οὗ ἄνθρωπος ἐγένετο ἐπὶ τῆς γῆς”이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람이 땅에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가 될 것이다. “창세 후야 옴으로”(17:8)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경우인데, “창세 이후로”로 번역해야 어색함을 면할 수 있다.

(12) “하느님의 장막이 인간에 잇스매”(21:3)에서 “인간에”는 “인간과 함께”로 번역해야 의미가 분명해진다. 헬라어 원문은 “ἡ σκηνὴ τοῦ θεοῦ μετὰ τῶν ἀνθρώπων”으로 되어 있다. 전치사 “μετὰ”로 보거나 문맥으로 보더라도, 본문은 처격으로 번역될 수 없는 단어이다. 이후의 모든 다른 번역도 이를 수정하고 있다.

(13) “신부로써 네게 보이리니 곳 어린 양의 안희라”(21:9)에서 “신부로써”는 어색하다. 헬라어 원문은 “δείξω σοι τὴν νύμφην τὴν γυναῖκα τοῦ ἀρνίου”이다. “신부”와 “어린양의 아내”는 동격으로 사용되었다. 굳이 “신부로써”라고 번역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모호하게 연결시킬 이유가 없다.

4.2.2. 오역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 번역에서 대표적인 오역으로 볼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1) “그 늑아는 두아디라에 잇서”(2:24)에서 “그 늑아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다. 헬라어 원문은 “ὑμῖν δὲ λέγω τοῖς λοιποῖς τοῖς ἐν Θυατείροις”이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사람들(너희)에게 말한다”가 될 것이다. 본문에서 “그 늑아는”이 “λέγω” 동사 안에 들어 있는 1인칭 대명사 주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그러한 예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τοῖς λοιποῖς τοῖς ἐν Θουατείροις”의 부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개역』이나 『개역개정』의 번역에서와 같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로 번역하면 충분하다.

(2) “그 중 여러 선지자의게 보이신 복음과 궤히리라”(10:7)에서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헬라이어 원문은 “ὡς εὐηγγέλισεν τοὺς ἑαυτοῦ δούλους τοὺς προφῆτας”이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는 그가(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전해 준 대로”가 될 것이다. 『개역/개역개정』은 “전하신 복음과 같이”로 번역하고 있으며, 『공동』과 『새번역』은 “전해/전하여 주신 대로”로 번역하고 있다. 이를 비교해 보면, 『개역/개역개정』은 “전하다”라는 동사와 “복음”이라는 명사를 결합한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εὐηγγέλισεν”이란 동사가 가진 일차적인 의미인 “복음을 전하다”라는 의미에 충실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동사는 “밝히다/알게 하다/전하다”의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종말에 대한 “하느님의 오묘함/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게 해 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과 연관되어 있다.¹⁷⁾ 따라서 본문은 『공동』과 『새번역』에서 번역한

17) 이달, 『요한계시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188-189. 요한계시록에서 “유앙겔리제인”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예는 14:6이다. 여기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명사와 “유앙겔리제인”이라는 동사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헬라이어 원문은 “ἔχοντα εὐαγγέλιον αἰώνιον εὐαγγέλισαι ἐπὶ τοὺς καθήμενους ἐπὶ τῆς γῆς καὶ ἐπὶ πᾶν ἔθνος καὶ φυλὴν καὶ γλῶσσαν καὶ λαόν”으로 되어 있다. “(-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14:7의 내용으로 볼 때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εὐαγγέλ” 파생어를 자동적으로 “복음”이나 “복음을 전하다”로 번역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달, 『요한계시

것처럼 “전하여 주신 대로”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 번역은 현대인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어렵다. 그것은 대체로 현대어와 다른 표기 방식, 현대어와 의미가 다른 단어의 선택, 잘못된 번역에 기인하고 있다.

표기상 문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현대 표기법으로 발전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많은 현상들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 19세기의 표기법이 현재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아가 그 대로 사용되고 있고, 받침 “ㅅ”을 많이 사용했으며, 복모음의 빈번한 사용과 된소리나 거센 소리의 표기가 현대 국어와는 달랐다. 또한 두음 법칙, 구개음화, 모음조화 같은 음운 현상의 표기나 조사와 사이시옷과 같은 문법 형태소의 표기도 현대 국어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 모든 현상은 『성경전서』(1911년)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음소적 표기법에서 뜻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는 형태적 표기법으로 발전하는 초기 과정에서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의미가 다른 단어를 선택하여 현대인들이 읽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 중에 일부는 당시 대본으로 사용된 영어 번역인 *Revised Version*을 반영한 것들도 있다. 받침이 탈락되어 현대인들이 다른 단어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현대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표기 등도 있다.

번역에 문제가 있는 곳도 발견된다. 특히 피동을 나타내는 특이한 표현(“넙다, 밧다, 엇다”의 사용)이 나오고 있다. 완결되지 않은 문장으

록』, 248-249와 David Aune, 『요한계시록 6-16』,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3), 787-788을 참고하라.

로 번역이 끝난 경우가 있고,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번역이 있으며, 더 적합한 단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도 있다. 또 많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오역으로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은 표기 방식과 단어 선택, 번역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19세기 당시의 개화기 국어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표기상의 혼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성경전서』(1911년)는 여전히 당시의 표기 방식 변화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¹⁸⁾ 경전의 특성상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전서』(1911년)가 『개역』을 비롯한 후대의 번역에 길잡이 노릇을 한 것은 한글 번역 성경의 역사상 의미가 크다. 한글 번역 성서 간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일은 또 다른 연구의 주제가 될 것이다.

<주요어>

성경전서(1911년), 요한계시록, 표기법, 오역, 음소, 문법, 음성적 표기, 분철

<Key Words>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The Book of Revelation, orthography, mistranslation, phoneme, grammar, phonetic notation, syllabification

* 접수일 2010년 9월 12일, 수정일 2010년 9월 15일, 게재 확정일 2010년 9월 15일

18) 이의 한 예로 조선어학회가 1933년에 제정된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성서공회에 새 맞춤법을 채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정길남, “초기 국역 성서의 표기에 관하여,” 237.

참고문헌

- 『개역개정』: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개역』: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공동』: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새번역』: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York: Thomas Nelson & Sons, 1901.
- Revised Vers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81-1885.
- 김창락, “『성경전서』의 번역 검토-『마태복음서』 번역의 장점과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4:1 (2010).
- 나채운, 『기독교용어 바로잡기』, 서울: 대동출판사, 2009.
- David Aune, 『요한계시록 6-16』, 김철 역, 서울: 솔로몬, 2003.
- 민영진, “창세기(1906/1911)-서지 사항, 편집특징, 번역 특징, 주석 선택을 중심으로,” 『Canon & Culture』 4:1 (2010).
- 민영진, 『국역 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박용규, 『평양대부흥 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 이달, 『요한계시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 이익섭, 『국어학개설』, 서울: 학연사, 2008.
- 전무용, “『성경전서』와 『성경개역』의 한국어 문장 비교-요한복음 1장-10장의 어순을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33 (2009).
- 정길남, “초기 국역 성서의 모음 현상에 관한 고찰,”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7.
- 정길남, “초기 국역 성서의 표기에 관하여,” 그리스도교와 겨레 문화 연구회 편,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최태영, “초기 번역성경 연구 II,” 그리스도교와 겨레 문화 연구회 편,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초록>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 번역 특징에 대한 고찰

이 달

(한남대학교 교수)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 번역은 현대인들이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대체로 현대어와 다른 표기 방식, 현대어와 의미가 다른 단어의 선택, 잘못된 번역 때문이다.

표기상 문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현대 표기법으로 발전하기 전 상태를 보여주는 많은 현상들을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 19세기의 표기법이 현재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아가 그 대로 사용되고 있고, 받침 “ㅅ”을 많이 사용했으며, 복모음의 빈번한 사용과 된소리나 거센 소리의 표기가 현대 국어와는 달랐다. 또한 두음 법칙, 구개음화, 모음조화와 같은 음운 현상의 표기나 조사와 사이시옷과 같은 문법 형태소의 표기도 현대 국어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 모든 현상은 『성경전서』(1911년)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음소적 표기법에서 뜻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는 형태적 표기법으로 발전하는 초기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의미가 다른 단어를 선택하여 현대인들이 읽는 데 어렵게 하였다. 그 중에 일부는 당시 대본으로 사용된 영어 번역인 *Revised Version*을 반영한 것들도 있다. 받침이 탈락되어 현대인들이 다른 단어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현대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표기도 있다.

번역에서 문제가 있는 곳도 발견된다. 특히 피동을 나타내는 특이한 표현(“넙다, 밧다, 엇다”의 사용)이 나온다. 완결되지 않은 문장으로

번역이 끝난 경우가 있고,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번역이 있으며, 더 적합한 단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도 있다. 또 많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오역으로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은 표기 방식과 단어의 선택, 번역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19세기 당시의 개화기 국어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표기상의 혼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성경전서』(1911년)는 여전히 당시의 표기 방식 변화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전의 특성상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전서』(1911년)가 『개역』을 비롯한 후대의 번역에 길잡이 노릇을 한 것은 한글 번역 성경의 역사상 의미가 크다.

<Abstract>

Some philological observations on the translation characteristics of The Book of Revelation in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Prof., Dal Lee
(Hannam University)

The transl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in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provides difficulties for the modern people to read and understand. That comes from the different style of notation from the modern Korean language, choice of vocabulary which gives different meaning from the modern words, and incorrect translation or mistranslation.

When we look into the notation problem, we can find many

phenomena which show the pre-modern notation. This is because the notation of the nineteenth century Korean shows the different notation from the modern usage. In detail, the special vowel, “·” was still being used, and “入,” one of the final consonant, was used a lot as a representative for six other final consonants. Frequent use of the diphthongs and hard sounds or aspirated sounds were seen differently from the modern language. In addition, we can observe diverse usage in many phonemal phenomena such as phonetic principle of the first sounds, palatalization, and vowel harmony. Also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notation of morphemes. All these phenomena are the cases which show the early development of notation from phoneme notation to morpheme notation.

Another cause to give difficulty for modern readers to read resides in the choice of vocabulary which has different meaning from modern one. Partly it comes from *The Revised Version* which was used as the source of translation. Some words were deleted in the final consonants and some words were written differently from the modern usage, so that the contemporary readers are easily led to misunderstanding of the words in question.

There were not a few examples of incorrect translation or mistranslation. Among others, we can tell the unique expressions of passive form(“넙다, 맞다, 엇다”). Furthermore, there are some cases of incomplete sentences, awkward or unnatural translations, inadequate translations. Even though there are not many, there are certainly some instances of mistranslations.

As a conclusion, The Book of Revelation in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reflects the phil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times of flowering, seen from the notation style, the choice of vocabulary, and the level of translation. We can see them especially in the confusion of notation of that times.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rather responded conservatively against the changing trend of the times.

We can understand this particular phenomena,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canon. However, *The Complete Bible in Korean* (1911) is of great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Bible translation in that it has guided and influenced a great deal the later translations including *The Korean Revised Version*.

